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절 후 제5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1(통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겨우내 메말랐던 매화나무 가지에 어여쁜 꽃봉오리들이 솟아오르는 신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차갑고 메마른 마음에도 새로운 소망의 꽃봉오리들이 돋아나게 해주십시오. 스산한 겨울의 기운을 이기고 저마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기운을 이끌어내게 해주십시오. 꽃샘추위가 거셀수록 봄날이 멀지 않았음을 잊지 않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삶과 죽음의 각축장이 되어 평안을 잃어버린 채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을 걸으며 평강을 얻게 하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고전10:13 .....
♠ 교 독 문 .....	24. 시편46편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86(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성경봉독 .....	I. 삼상23:14-18 .....
	II. 롬14:13-19 .....
찬 양 .....	박규석 집사
말 씬 .....	I. 우정의 언약 .....
	손성현 전도사
	II. 사랑을 따라 산다는 것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함께

- 찬 송 ..... 420(통212). 너 성결키 위해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을 따라 사십시오.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입장을  
헤아리며 돌아가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나 중심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나의 선부른 판단이 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해와 배려를 통해 서로  
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  
운 순례길에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신임원 환영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진행 : 2남선교회	기도 : 정영선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박홍재 권사

<b>2월</b>	영접위원	한상익 김중수 문홍일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헌금위원	조병무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고난에 뜻이 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정의(情義)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잔혹한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인도의 위대한 혼이 성스러이 말한 것같이 "고난은 생명의 한 원리다"(간디). 우리는 고난 없는 생을 상상할 수 없다. 죽음은 삶의 한 끝이요, 병은 몸의 한 부분이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고난은 죄를 씻는다. 가성 소다가 때를 씻는 것같이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불의로 인하여 상하고 더러워진 영혼은 고난의 고즙(苦汁)으로 씻어야만 회복이 될 수 있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생명의 깊은 뜻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눈물로 그리는 그림으로만, 한숨으로 부르는 노래로만 나타낼 수 있다. 평면적, 세속적 인생관을 가지는 자는 저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고 남으로써 생명은 일단의 진화를 한다. 핍박을 받음으로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궁핍과 형벌을 참음으로 자유와 고귀를 얻을 수 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은 육에서는 뜯어가지만 영에서는 점점 더 닦아낸다.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은 한때나, 그 주는 보람과 뜻은 영원한 것이다. 개인에서나 민족에서나 위대한 성격은 고난의 선물이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이끈다. 궁핍에 주려보고서야 아버지를 찾는 버린 자식같이,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애굽의 압박과 광야의 고생 가운데 자라났고, 인도의 철학은 다른 민족과 사나운 자연과 싸우는 동안 브라만에게 이르렀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악의로 포장되어 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의 실꾸리를 감게 되고, 그 실꾸리를 감아가면 영원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과연 고난은 "우리 생명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다" "사람들은 자유의 제단에 알찼한 자기 희생과 견디고 참음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비록

그 인내의 힘을 끝점까지 써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한 일과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저희는 참 자유, 참 스와라지(自治)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저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간디)

.....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재난이 올 때마다 피하기부터 하려하고 비탄만 하지만, 그 당파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시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의인 대접할 줄을 모르는 한 환난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그럴 것이다. 죄가 무슨 죄냐? 나를 버린 것이 죄요, 뜻을 찾지 않은 것이 죄다. 나를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뜻을 찾지 않은 것이 생명을 찾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평면적인 인생관을 고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자아에 충실하기 위하여, 고식주의를 깨드리기 위하여, 은둔주의를 벗기 위하여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이라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바탈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착한 것이 나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잃었던 용기를 다시 찾기 위하여, 약아빠짐이 타락해버린 지혜를 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중간에 생긴 종살이 버릇을 없애기 위하여, 굳센 의지가 자아가 되고 고결한 혼을 다듬어내기 위하여 불같은 고난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명을 마비시키는 속명철학을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의 반발을 찢러 일으키는 지독한 고통이 필요하다. 장차 올 새 역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은 절대 필요하다. 보다 높은 도덕, 보다 넓고 진보적인 사상의 앞잡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낡은 모든 것을 사정없이 빼앗아가는 고난의 좁은 문이 필요하다.

이 백성에게 참종교를 주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명의 한 단 더 높은 진화를 가져올 새 종교를 찾아내기 위하여 낡은 종교의 모든 미신을 뜯어치우는 고난이 필요하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모든 부족신, 계급신, 주의(主義)신을 다 몰아내는, 새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에서 모든 터부, 모든 주문, 모든 마술적인 것, 모든 신화적인 것, 모든 화복주의적인 것을 뽑아내는 풀무 같은 엄격한 핵분열적인 고난이 있어야 한다.

## 입춘(立春)

꽃술이 떨리는  
매화의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나의 정원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 있는 모든 것들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이해인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준우 우순덕 김신옥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희진  
 박홍재 박애순 윤미경 윤수진 윤영원 이선희 이정규 이인섭 정미경  
 안정숙 임승동 백혜숙 김순복 전영웅 임고은 허신열 권미숙 김재홍  
 최희영 김일랑 이은옥 곽다빈 임창선 전세종 오정숙 정한구 왕영순  
 송희원 송채원 송우석

## 월정헌금:

김남홍 김순자 김영한 이희균 정두리 하현철 최성애 이영란 김정민  
 김영순 김종철 고영애 김수진 김승현 박상규 김명순 이교영 박범희  
 박미영

## 감사헌금:

우순덕 김준우 이봉옥 김용진 박효선 임종길 김경애 김영한 이희준  
 곽다윗 이현순 안정숙 박상규 이혜수 오정숙 전성오 심소재 전세종  
 무명

생일감사헌금: 정두리 이건식 이준희

녹색꿈 헌금: 정두리 문금석 윤석철 장혜숙 조항범 오현정 무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연 합 속 회	조 순 덕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박 미 영		이 은 옥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박 정 숙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안 정 숙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이 순 정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정 은
가버나움	안 흥 숙	오 현 정		정 현 주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백 혜 숙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명 희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윤 정 화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백 혜 숙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주현절기** : 주현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현현해 계신 주님을 발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신임원환영회** : 오늘 오후집회는 신임원 환영회로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4. **찬양대 임명** : 1년 동안 청파교회의 찬양대원으로 수고할 이들을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5. **청년부 수련회** : '한 몸을 이루는 우리'라는 주제로 2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양평 개척자들 샘터에서 열립니다.
6. **산행** : 이번 주 14일(토)에 청파산악회에서 청계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에 9시 20분, 서울대공원 분수광장으로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7. **실천** : 이곳저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금주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설거지 봉사: 허호범 박성실

다음 주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 ◀ 2009년 찬양대 명단 ▶

대 장 : 김근종      지 휘: 윤주원      반 주: 최윤선 최미선  
 소프라노 : 이은자 황선희 정현주 임수연 오현정  
 메 조 소 프 라 노 : 구명자 김명희 김수연 송양진 정미경 박성희 김경애  
 앨 토 : 윤수진 최윤희 정옥영 최성애 김재영 유지은 박시내  
 테 너 : 안길상 한상익 임원민 이광섭 장재영 이종현  
 베이스 : 이한림 김근종 장원호 조항범 안종일 최명동 임종길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